

나의 베트남

“Mekong Delta 2003” 연수기



지난

여름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박 선생님의 권유로 베트남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Canto시에서 열리는 “Mekong Delta 2003”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SARS 유행으로 계획이 취소될 거라는 말을 듣고, 7월초에 필리핀으로 7박 8일간의 의료선교여행을 다녀왔다.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급히 연락을 바란다는 박 선생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예정대로 PAOT 연수가 진행된다는 것이었다. 여름휴가를 이미 써 버렸기 때문에 많이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PAOT(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Training Program)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다. 베트남 Canto시에 위치하고 있는 ECHO센터 소장인 Khai 박사와 그 직원들이 주관하고 일본의 도요다 재단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참가자들은 일본에서 7명, 태국에서 3명, 베트남에서 1명, 그리고 대한민국 구미에서 참석한 나를 포함하여 전체가 12명이었다.

8월 7일 호치민 공항을 거쳐 칸토지역에 도착하여 베트남의 전통국수인 “Pho”를 한 그릇 먹고 호텔로 돌아와 잠에 골아 떨어졌다. 다음날 아침 7시부터 ECHO 센터에서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연수일정은 10분 단위로 쪼개어져 있을 정도로 아주 빠박하였다. 그러나 참가자들 모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너무나도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물론 연수 주제가 “Participatory Action Oriented”라는 점이 참가자들로 하여금 적극성을 띠게 만들었지만, Khai 박사의 참가자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차분하면서도 유머감이 뛰어난 리더십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헌신적으로 수고한 ECHO 센터 스텝진과 일본의 나카오 상, 토루 상 등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진 작품이었기에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더욱 감동적이고 귀하게 느껴진다. 한국에서는 나같이 재미없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일한 한국 대표로(?) 선물로 준비해간 부채를 이용하여 아리랑을 부르며 부채춤을 추었으며, 한국에서 수입한 노래방 기계로 “한국판 러브스토리”인 갑돌이와 갑순이를 불러 100점이 나와 그날의 명가수(?)가 되기도 하였다. 음악 성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아마도 한국에서의 노래방 출입 경험을 살려 목청을 높여 부른 것이 주효한 것 같았다. 특히, 한류 열풍 탓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데다가, 나 하나가 참석함으로 인해 참가국이 3개국에서 4개국으로



우극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산업의학과장

늘어나는데 대해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나를 대단히 환대해 주었다. 나 또한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연수기간 중에 메콩 델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Song Hau" 집단농장의 농가들을 배를 타고 이동하며 베트남 사람들의 삶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정말 좋았다. 그 지역에서의 좋은 개선사례들을 디카로 촬영하면서 가까이에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며 서로 얘기하기를 즐기는 것 같았다. 또한 낙천적이고 성실하며 열정적이고 손님 접대를 기꺼이 하며, 예의 바르고 참을성이 많은 것 같았다. 어느 농가에 들렀을 때 구운 고기를 내어놓고 먹어보라고 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rat meat"란다. 그 지역이 곡창지대일 뿐 아니라 오염되지 않아 쥐고기를 즐겨 먹으며, 또한 그들의 주된 단백질 공급원이 된단다. 그들도 도시에서는 먹지 않는다고 했다. 여러 가지 다른 음식들도 내 입맛에 그런대로 맞는 것 같아 별 어려움이 없이 잘 지냈던 것 같다.

PAOT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원리를 설명하고 지식위주의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통상적인 훈련방법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작업개선의 원리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잘 활용하고 있는 많은 좋은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와 자극을 받아 능동적으로 그들 자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훈련기법이다. 베트남 연수기간 중 이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공장 3군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의 작업환경은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더 열악하였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자발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작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노사가 모두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다. 8월 13-14일 이들 동안은 "Song Hau" 집단농장의 농민들 10세대를 가구당 2명씩 (부부나 모자 혹은 부자) 총 20명을 초청한 가운데 WIND(Work Improvement in Neighborhood Development)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본 WIND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참가자들 가운데 한 가정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둘러보면서 준비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실습을 하게 하여 잘된 점 3가지와 개선되어야 할 점 3가지를 적게 한 후, 그룹토의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다.

2. 4개국으로부터 참가한 우리가 파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되어 각 세션 별로 간단한 원리와 좋은 개선사례들을 발표한 후, 참가자들이 그룹활동(토의 및 발표)을 통해 서로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게 촉매역할을 한다.

3. 최종적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 스스로 어떻게 개선활동을 추진할 것인가를 두 사람이 함께 토의하게 한 후, 3개월 이내의 단기 개선계획과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장기계획을 발표하게 한다.

처음에는 과연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들의 태도와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진지하게 그들의 단기 및 장기 개선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PAOT의 파워를 실감하였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베트남 연수를 다녀온 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두 차례에 걸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PAOAP(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Approach Program)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근골격계질환은 특히 제조업과 같은 직종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 회사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노사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PAOT와 같은 방법을 통한 노사 참여형 개선전략이 우리나라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민**